

중화민국기 중국인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천홍민¹ (저장대)

원문 중국어, 번역: 홍용일

근대 중일 관계에서 일본 군인은 중국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일본 군부라는 개념은 중국인들이 일본을 인식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현재 중국 역사학계에서 “일본 군부”에 대한 연구와 논문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¹이 논문은 개념사적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시기 (1912년 ~ 1949년) “일본 군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비판을 초보적으로 제시, 분석함으로써, 근대 중일 관계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군벌’에서 “일본 군벌”로

중국 고전에도 “군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군인들의 전투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² 근대적 의미에서의 “군벌” 개념은 19세기 80년대(다이쇼 초기) 일본에서 탄생했는데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 학자 마츠시타 요시오는 “군벌”을 군대 내에서 특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 집단으로 정의한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그 기본 특징이라는 것이다.³ 1916년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사망한 후, 중국에서도 군인 세력들이 파벌 분쟁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군벌” 개념을 빌려 국내 난국을 비판했다. 학자 쉬용의 연구에 따르면, 군벌이라는 단어는 5.4 운동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1920년대에는 유행어로 널리 파급되었다.⁴ 중국과 일본의 국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된 “군벌”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다. 즉 외교적으로는 제국주의에 빌붙고

¹ 중국 학술데이터베이스(“中国知网”, cnki.net) 검색 결과에 의하면,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일본군국주의”, “일본제국주의”, “일본침략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 군벌”을 언급한 연구는 비교적 적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 徐勇《近代中日两国军阀政治现象及其政治文化比较》(《思想理论战线》2022年第3期)、徐勇《日本的军部政治化与法西斯主义的确立》(《历史研究》1988年第4期)
- 陶海洋《近代日本军阀破坏国内政党政治—基于〈东方杂志〉的述评》(《江苏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7年第4期)
- 赵庆云《“日本人民”与“军阀政府”的辨析—济南惨案后中国报刊舆论对日认识的一个侧面》(《五邑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年第3期)

² 谢蔚：《试析“军阀”古义的形成》，《历史教学(高校版)》2009年第1期。

³ 徐勇：《近现代军阀现象的政治文化分析——兼考军阀概念输入中国之成因》，《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9年第5期，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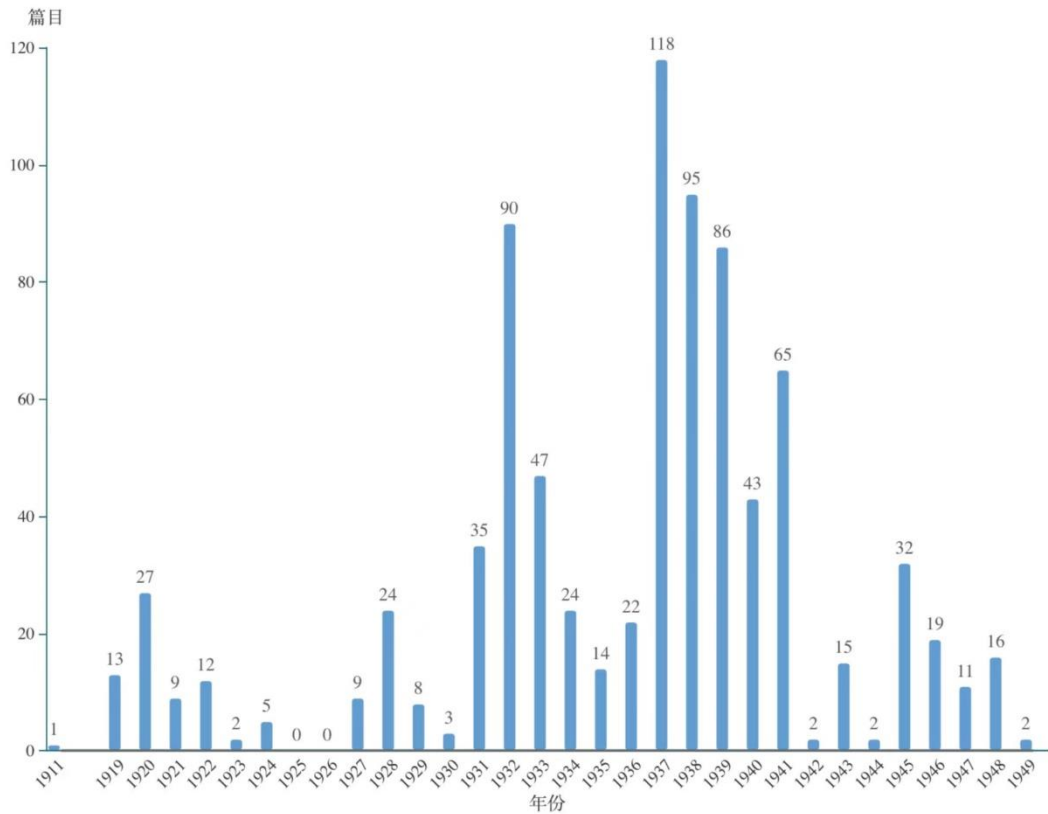
⁴ 徐勇：《近现代军阀现象的政治文化分析——兼考军阀概念输入中国之成因》，《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9年第5期，p.62

내부적으로는 규율 문란으로 민중에게 해를 입히는 등 복합적인 속성을 더해갔다.

“군벌” 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 군벌” 이라는 단어도 중국 언론에 등장했다. 중국 신문 검색 시스템(“全国报刊网索引网”)에서 검색해보면, 1919-1949 년 사이 “일본 군벌” 을 언급한 기사는 총 851 건이다.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한 두 기사는 각각 1919 년 2 월 11 일자 “민국일보” 에 게재된 추창(楚伧)의 “일본 군무과에게 묻다” 와 1919 년 3 월 21 일자 “시보” 에 게재된 “일본 군벌 폐지 실행” 이라는 기사다.

도표 1: 중화민국 시기 중국 신문 기사 제목에 “일본 군벌” 이 포함된 기사 데이터

(자료 출처: 중국 신문 검색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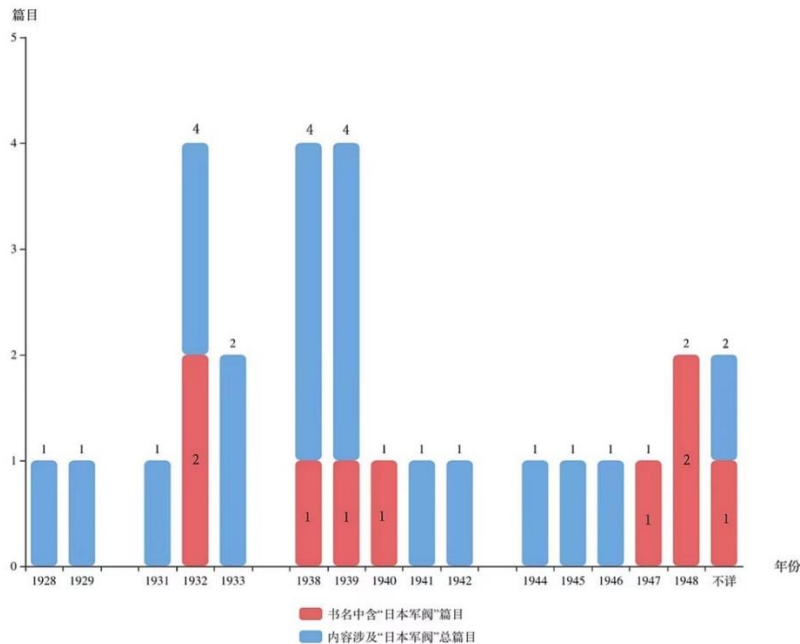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화민국 시기 중국 신문 기사 제목에 “일본 군벌”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5 개의 시기를 보면, 일본의 대중 군사 침략과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19-1920 년 사이로, 제 1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중일 양국이 산둥 문제를 두고 치열한 분쟁을 벌였던 시기였다. 두 번째는 1928 년으로, 일본이 북벌군(北伐军)을 방해하고 “지난 참사”(“济南惨案”)를 일으켰던 해다. 세 번째는 1931-1933 년 사이로, 일본이 9.18 사건을 일으켜 동북을 침략하고 전쟁을 화북 지역으로 확산시킨 시기였다. 네 번째는 1937-1941 년 사이로, 일본의 중국 전역에 대한 침략 확대,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항일투쟁기였다. 다섯 번째는 1945 년으로,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 항복하게 되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했던 해였다. 특히 주목할 현상은, 1937-1941 년 사이 5 년 동안 매년 평균 80 건 이상인데 비해, 1942 년에는 전년도 65 건에서 단 2 건으로 급감했고, 1943 년에는 15 건, 1944 년에도 단 2 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3 년 동안 기사에 언급된 것은 매년 평균 7 건도 되지 않았다. 이 두 시기 모두 중국의 전면적인 항전기에 속하는 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그 원인을 유추해 본다면, 1941 년 말 태평양 전쟁 발발과 더불어 중국 전선이 연합군과 연결되었고, 일본에 대한 항전 승리가 기본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색채가 농후한 “일본 군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일본 군대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중화민국 시기에는 책 제목 혹은 목차에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이 신문보도에 비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신문보도가 새로운 것과 적시성을 추구하는 데에 비해, 출판물은 출간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푸단대학 도서관 룡상양(龙向洋)연구원이 주도한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기획 프로젝트 “중화민국 시기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 (“民国时期图书目录资料库”, 중국과 해외 주요 도서관 장서 목록) 검색 결과에 의하면, 민국시기 “일본 군벌”과 관련된 저서는 총 28 권으로 집계된다. 그 중 제목에서 직접 “일본 군벌”이 표기된 책은 9 권이다.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은 1932 년 5 월 북평 취빈각(北平萃斌阁)에서 출판한 차오중산(曹重三)의 “일본 군벌의 대중국 간섭 강경화 및 과시즘 운동(일본의 최근 정세 변화)”(《对华硬化之军阀干政与法西斯运动(日本最近政情之演变)》)이다. 그리고 그 해 8 월에는 상해의 “시사 편역사”에서 일본인 사토 기요가즈(佐藤清勝)의 “동북 문제와 일본 군벌의 대륙 정책”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처럼 1932 년에 “일본 군벌”이라는 제목을 단 도서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유는, 그 전 해에 일본이 중국 동북부를 침략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군벌”과 관련된 도서가 1932-1933 년에 8 권, 1938-1939 년에 6 권이 출판되는데, 이는 다른 해에 비해 많은 기록이었다. 모두 일본의 대중 침략이 확대된 후에 출판된 것인데, 이 시기에는 신문에서의 노출 빈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도표 2: 중화민국 시대 “일본 군벌” 과 관련된 제목을 가진 도서의 수

(출처: 룡상양의 ‘중화민국 시기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



2. 중국인들의 “일본 군벌” 인식과 활용

중화민국 시기에 중국인들이 사용한 “일본 군벌” 이라는 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 군부, 침중 일본군을 가리키며, 특히 고위 군인을 특정할 때 사용되었다. 가령 1927년 6월 12일 상하이 “시사신보”(时事新报)가 실은 “일본 군벌 청도에 도착”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본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대장의 중국행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군벌” 표현은 주로 일본 침략의 부당성과 침략이 필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학살 행위를 폭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 사회 구조에 대한 학문적 탐구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목적을 살펴 보면 대체로 교차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1) 일본 군벌의 형성사와 현황, 세력과 인물을 연구하여 지피지기 중국인이 되자

1922년, 류푸(刘馥)가 《일본 군벌론》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힐 때, “일본 군벌이 어떻게 전국을 지배하는지, 그 방법은 어떤지, 그 내부의 세력은 어떤지, 지도자 인물은 누구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고, 또한 우리 중국인이 반드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일본 군벌론》은 서론과 네 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일본 군벌의 기원(문화, 헌법, 관제, 국방 등의 관점에서의 관찰), 일본 군벌의 현황(육해군, 정치, 외교, 원로, 관료, 재벌, 정당 등과의 관계), 일본 군벌의 내용(육군벌, 해군벌, 육해군벌의 내외 정략 등), 일본 군벌의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7년 후의 1929년, 마오펑린(繆凤林)이 같은 제목을 단 또 다른 《일본 군벌론》을 난징 《사학잡지》에 발표한다. 마오의 글은 서론, 결론 및 여덟 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제6장까지는 주로 일본측 자료를 제시하고, 제7장에서 제9장까지는 일본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의견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⁵ 사실, 당시 중국 매체에 발표된 일본 군벌의 역사와 특성을 분석하는 문장들은 대부분 일본인의 연구성과를 참고한 것들이었다.

1935년 주간지 “한혈주간”(汗血周刊)에 실린 ‘일본 군벌과 일본 정치’라는 글은 일본 군벌이 일본 정치에서 특수한 권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내각과 대립하는 이른바 ‘군부’의 헌법적 지위”, “군부 대신 무관제”(軍部大臣武官制), “국회가 아닌 천황에 대한 일본 내각의 책임제도”, “내각의원 책임자만이 총리대신으로 선출 가능한 관습 시스템”, “일본 군벌이 지방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1901년 이후 일본에서 결성된 20개의 내각 중 10개의 내각이 군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전쟁만이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공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일본 지배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지주들은 더 이상 정당을 신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군벌들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본 군벌은 일본 정치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문장의 귀착점은 일본 군벌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였다. 인용하면 이렇다.

“일본 군벌의 정치력 증대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중화민족의 미래는 날이 갈수록 암담해질 것이다. 우리 민족을 되살리고 민족적 비극을 해소하려면 강력한 정치 통치 하에서 일본 군벌의 폭력에 맞선 국가 방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⁶

이러한 학술연구와 비교적 소박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재를 통해 잡지에 실리게 된다. 그리고 1937년 루거우차오 사변(卢沟桥事变)을 통해 일본이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시기 직전과 직후에 발표된 문장들이었다. 당시 중일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으로 현상 유지가 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도 이성적인 발언이 가능했다.

(2) 일본 군벌과 다른 파벌, 민중과의 모순을 드러내어 중국 항일 군민에게 용기를

9.18 사건 직후 일부 중국인들은 일본 군벌과 정부 간의 갈등을 분석했다. 일본 군벌들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대외 전쟁을 발동하고 중국 동북을 침략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벌과 당시 일본 정부 간의 오랜 갈등이 “날이 갈수록

⁵ 繆凤林: 《日本军阀论》, 《史学杂志》(南京), 1929年第1卷第2期, p.2

⁶ 白鸥: 《日本军阀与日本政治》, 《汗血周刊》1935年第4卷第11期, pp.168-170

심화” 되고, 중국 동북 침략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게 되었다.⁷

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놓고 일본 군벌과 정부 사이에 첨예한 모순이 있음을 중국 언론은 보도하기 시작했다. “9. 18 이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군벌의 장악하에 전개됐다.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소장파 군인(少壯军人)들은 날로 기고만장” 해져 도쿄 정부는 이러한 기정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주장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북 지역의 비참한 상황과 상하이 지역 병력 증가는 모두 일신의 영달을 탐착했던 군인들의 소행이었다. 무고한 선량한 민간인들은 징병당하고, 원성이 거리를 메우고 있으며, 군비 지출로 인해 대규모의 파산 위기가 도처에 깔려 있어 일본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일본 정부 내부에 이미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으며, 원로 중신(元老重臣)들은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⁸

중국 언론은 이렇게 일본 군벌과 정부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일본 군벌-민중’이라는 이분법을 일반화시켜 간다. “일본 군벌과 인민을 향한 몇 마디”라는 문장에서 위세중(余协中)은 한편으로 중국이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결심을 표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국민에게 침략군의 학살, 방화, 강탈, 강간 등 잔혹한 행위를 폭로하고, 군벌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일본 국민들은 군벌의 지속적인 침략을 최대한 막고”, 중국 인민과 손잡고 일어나 “신속히 일본 군벌을 전복시킬 것”을 염원했다.⁹

(3) 일본 군벌을 향한 경고: 벼랑 끝에서 멈출 것을 촉구하다

중국 언론은 논리를 통해 일본 군벌이 회심하고 중국 침략을 중단하기를 촉구했다.

왕원성(王芸生)은 일본의 전면적인 대중 침공 직후, 《일본 군단에게 경고하다》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심어린 충고를 통해 일본 군벌이 침략 노선을 바꾸기를 희망했다. 왕은 첫째로, 일본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서야 군인들이 “충신 애국”의 미덕을 회복하고 국정을 왕실에 돌려줌으로써 “메이지 혁명의 토대를 다졌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 군벌의 노선은 지난 천년 동안의 옛 군벌들의 죄와 악행의 반복이며, “개인의 죄와 국가의 악행은 옛날 막부의 죄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¹⁰ 두 번째로, 일본의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대중 침략은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렬한 투쟁과 함께 강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윈스턴 체체를 깨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군비 강화의 길로 나설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일본 군벌은 “반드시 외부에서 경멸을 받게 되며, 내부에서는 붕괴와 같은 재앙이 몰려올 것”으로 전망한다.¹¹ 세 번째로, 국제 정세를 볼 때 일본 군벌이 초래한 위기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⁷ 岩白: 《倭军阀侵略东北之动机》, 《日本评论》1931年第1期, p.8

⁸ 《日本军阀专横, 日本政府内部发生重大裂痕》, 《锡报》1937年8月14日, 第3版。

⁹ 余协中: 《向日本军阀和国民说几句话》, 《经世》, 1938年战时特刊13, 第9期。

¹⁰ 王芸生: 《诫日本军阀》, 《救亡文辑》第38页, 1937年。

¹¹ 王芸生: 《诫日本军阀》, 《救亡文辑》第40页, 1937年。

만약 일본 군부가 계속 침략 노선을 고집한다면, “인류 모두가 일본 군벌의 재앙을 겪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반드시 일본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서 왕은 일본 군벌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군벌이여! 당신들이 기꺼이 조국의 반역자이자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고 싶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하라. 당신의 국가와 인류 세계는 당신을 정의롭게 처벌 할 것이다. 이성과 진실에 대한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메이지 신궁의 향로 앞에 무릎을 꿇고 선조들의 역사, 국가와 국민의 이익,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속죄하라!¹²

중국 언론은 또 외국 유명인의 말을 빌려 일본 군벌의 중국 침략의 부당함을 폭로하기도 했다. 1938 년 “문적” (文摘)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일본 군벌을 비난하다’ 라는 제목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일본 중국 침략에 대한 견해를 실었다. 타고르는 과거 일본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지만 지금의 일본은 완전히 변했다며 “무방비 상태의 동양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박해이며, 특히 경제 확장이나 영토 야망보다 더 나쁜 것은 매일 벌어지는 학살과 이 잔인성을 뻔뻔하게 은폐하는 것” 이라고 비판한다. ¹³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발언의 맥락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과정에 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대중 침략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타고르의 발언 맥락과는 별개로 ‘일본 군벌 규탄’ 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해 침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중국 신문과 출판물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 벅 (Pearl S. Buck)이 미국에서 출판 한 “일본 군벌의 심리학” 에서 무방비 상태의 중국 도시와 민간인을 일본 폭격 한 것을 비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펄 벅의 책을 번역 출판했다. 펄은 일본 군벌의 심리를 경멸하고 그들의 행동에 반대하며, “오늘날 일본이 중국에서 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입장을 표했다. ¹⁴

(4) 중국 내 일본의 잔학 행위 폭로

중국인들이 “일본 군벌”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주된 목적은 바로 일본이 저지른 다양한 잔학 행위를 폭로하기 위함이었다. 1928 년 7 월, “신보” (申報)는 ‘일본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라는 타이틀을 단 기사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가 중국 통일을 간섭하고 동북에서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대중 군사력 투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¹⁵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국민 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발표하였다. 선전포고문은 “일본 군벌이 오래 전부터 아시아를 정복하고,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국정을 운영해왔다” 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일본 군벌” 을

¹² 王芸生：《诚日本军阀》，《救亡文辑》第 40 页，1937 年。

¹³ 《泰戈尔痛斥日本军阀》，《文摘》1938 年第 12 期，p.299

¹⁴ 赛珍珠著、蒋学楷译：《日本军阀的心理》，《新文摘旬刊》，1938 年第 1 卷第 4 期，p.112

¹⁵ 《国民政府对日宣战原文》，《党员知识》，1941 年第 1 卷，p.2

침략 전쟁의 근원으로 보았다.¹⁶

《일본 군벌의 중국에서의 죄악 기록》 또한 일본의 대중 침략을 폭로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장에서는 “과시즘을 떠벌리고 다니는 일본 적병들이 중국에 남긴 피 묻은 낙인은 그들 자신의 피로도 씻어낼 수 없다”고 쓰고 있다. 이 문장은 일본군 지배하의 중국 경제 파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은 모두 일본에 점령당했다. 이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계는 물론, 농촌 경제에도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나쁜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반식민지에서 완전한 식민지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로지 일본 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대규모의 살육과 강탈, 미신 조장과 아편 흡입에 대한 장려, 토지 몰수와 곡물, 노동력 징용, 과도한 세금과 노동력 파괴와 같은 정책이 곧바로 그 원흉이었다.”¹⁷ 이러한 침략과 강탈 앞에서 중국인은 일본 침략자에 대한 저항을 굳혀갈 수밖에 없었다.

3. 장제스(蔣介石)의 “일본 군벌” 개념 운용¹⁸

장제스는 “군벌” 개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의 군벌 담론에서 “일본 군벌”은 특별하고 핵심적인 존재였다. 필자가 국민당 출판사가 수집한 장제스 발언집 《선총통 장공 사상 언론 총집》(先总统蒋公思想言论总集, 총 40 권)과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 보관소에 소장된 《장제스 일기》를 검색해본 결과, “군벌”이라는 용어의 출현 빈도는 전면적인 대일 항전기(1937-1945 년)에 정점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군벌”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일본”과 함께 언급된다. 또 저자가 참고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장제스가 처음으로 “일본 군벌” 개념을 언급한 것은 1928 년 5 월 “5·3 참변 기간으로, 그가 처음으로 “군벌” 개념을 사용한 것보다 9 년이 지난 후였다.¹⁹ 당시 일본군은 국민당의 북벌(北伐)을 방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장제스는 이로 인해 큰 좌절감을 안고 있었다. 그는 “중일 간 원한은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일본 군벌의 해악이 중국 군벌보다 더 심각하다”고 탄식했다.²⁰

젊은 시절 장제스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본에서 군사를 공부했고, 일본 군인의 지위와 군사 훈련에 동경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침략은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자신의 통치 체제를 위협했다. 이에 장제스는 일본 군부가 내정을 간섭하고 대외 침략을 감행했다는 현실과 ‘군벌’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살려, 일본 군부 세력과 일본 침략군을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서 “일본 군벌”을 사용한다.

¹⁶ 《国民政府对日宣战原文》，《党员知识》，1941年第1卷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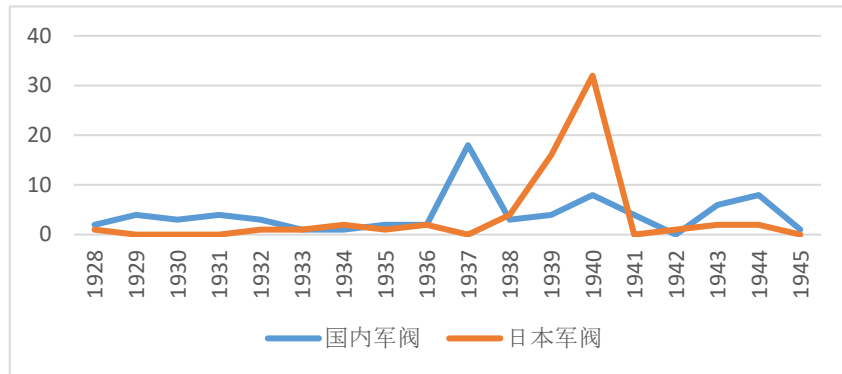
¹⁷ 陶泽译：《日本军阀在中国的罪恶记录》，《读者》1945年（无具体日期与期号）

¹⁸ 笔者曾研究蒋介石对“军阀”概念的认知，成果发表于《军事历史研究》2022年第4期。

¹⁹ 장이 ‘군벌’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19년 2월, 손중산에게 보낸 “废督裁兵议”이라는 제안서에서였다.

²⁰ 《蒋介石日记》（手稿本），1928年5月12日。

표 3 장제스 일기(1928-1945)에서 ‘군벌’ 과 “일본 군벌” 출현 빈도수



주: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의 빈도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일벌’ (日阀), ‘적벌’ (敌阀), ‘왜벌’ (倭阀)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제스가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를 가장 자주 사용한 1938-1940년은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독립적으로 싸웠던 시기였다. 이 시절 국민당 정부는 가장 풍요로운 동부 지역을 잃고 서남부로 후퇴하는 등 힘든 항전기를 겪고 있었다. 장제스는 적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항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일본 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편으로 자신의 일기에서는 일본군에 대한 저주와 욕설을 적으며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하며 중국 언론이 “일본 군벌”을 사용했던 상황과 일치함을 보인다.

장제스는 군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본 군벌을 비난하는 선전을 강화하며 전쟁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켰다. 9. 18 사변 이후, 장은 연설에서 “일본의 동북 3성 점령은 동아시아 평화를 침해했고, 일본 군벌은 스스로를 세계와 단절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²¹ 또 “중국 군대와 인민은 일본 군벌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동아 공동 번영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아시아를 합병하고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실천하는 일본 군벌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근절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²² 이렇듯 군벌은 당시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였고 필패의 이미지와 연동되어 있었다. 장제스는 “일본 군벌”을 활용한 선전을 확충해감으로써 ‘국내 군벌’ (역자 주: 국민당 계열 군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본 침략자에 돌리게 한 것이다.

‘일본 군벌과 국민’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은 장제스가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기본 논리였다. 장제스가 보기에 일본 군벌과 민중의 관계는 ‘억압’과

²¹ 蒋介石: 《拥护公理抗御强权》(1931年10月12日), 《思想言论总集》卷10, p.472

²² 蒋介石: 《对于国民参政员的期望》(1942年10月31日), 《思想言论总集》卷19, p.354

‘피억압’의 관계였으며, 침략을 옹호하는 군벌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일본 민중에 의해 타도될 존재라 여겨졌다. 장제스는 “(일본의) 일반 국민이 군벌 혐오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²³ 또 일본 침략군 대부분이 군벌들에게 억압 당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일반 일본 포로들에 대한 진심어린 교화 교육을 통해 조국의 군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²⁴ 장은 일본 국민과 군벌 사이의 대립 관계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일본 정치 무대에 ‘문무대립’(文武对立)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설득하며 문관(文官)도 군벌을 견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본 내 문무 양파(文武兩派) 사이의 승패는 누가 군벌을 통제하고 고립시켜 폭주를 제지시키는 여부에 달린 것이다”.²⁵ 장제스는 또 일본 군벌 내부에도 파벌간 투쟁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요나이 미즈마사(米内光政)가 내각을 구성한 후 장제스는 “육군과 해군은 반드시 암투를 벌일 것이며, 신구 세력이 점점 충돌하여 제국 내부에서 붕괴를 자초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군벌이 민중의 반대와 내외부의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을 견지하고 일본 군벌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은 중국의 필수적인 선택이었다.²⁶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은 장제스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의 목표는 일본 국민들이 일어나 군벌을 전복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었다. 1938 년, 장제스는 항일전쟁 1 주년을 맞아 “중국은 일본 군벌에만 반격한다”는 제목으로 “일본 국민에 드리는 편지”를 발표했다. 그는 이 문장에서 처음으로 중일 양국이 “형제의 나라”로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일본 군벌은 중국 침략 전쟁을 일으켜 학살과 강간을 일삼는 가운데 중국 국민들에게 큰 재앙을 끼치고, 일본 국민들 역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거대한 군비 지출에 더해, 젊은 병사들은 전장의 귀신이 되고, 젊은 아내들은 과부가 되는 등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일본 군벌의 광란에 있으며, 중국의 저항 전쟁은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일본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또 장제스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중국의 저항 전쟁은 자기 방어와 생존을 위한 것이자, 중일 양국 국민들의 미래와 영구한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일본의 폭력 군부는 중국의 적이자 일본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다. 중국은 저항 전쟁 이래로 일본의 군벌만을 적으로 여겼으며, 일본 국민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중략) 제군들은 양국의 안위를 깊이 이해하고 단결하며, 폭력 군부의 일체 행위를 반대하기를 바란다. 일본 국민들이 정의로운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이 침략 정책을 철수하고 평화 질서를 회복하며, 중일 양국의 친목을 실현해감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를 이룩하기를

²³ 《蒋介石日记》(手稿本), 1933年3月17日。

²⁴ 蒋介石:《今日教育与体育应注重之要点》(1940年10月13日),《思想言论总集》卷17, p.48

²⁵ 《蒋介石日记》(手稿本), 1934年11月27日。

²⁶ 蒋介石:《抗战建国三周年纪念告美国民众书》(1940年7月8日),《思想言论总集》卷31, p.188

바란다. ”²⁷

1년 후, 장제스는 또 1만 6천 자 분량의 “항전 및 건국 2주년 기념 일본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를 발표한다. 이 편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군벌의 기만적인 선전을 폭로한다”, “동아시아 민족을 노예화한 일본 군벌의 죄악을 선포한다”, “중국 항전이 반드시 승리하고 건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한다”, “결론” 등 구성을 통해 일본 군벌의 여러 가지 악행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장은 글의 마지막에서 작년에 언급했던 기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민중들이 깨어나 단결하고, 또 정의의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일본 군부의 만행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⁸

그리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외 원조를 요청하는 국제 선전에서, 장제스는 “일본 군벌” 개념을 활용하여 일본 침략에 대한 혐오와 중국 저항전에 대한 동정 및 지원 열망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여기서 장은 침략적 야심을 품은 일본 군벌은 곧 각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군벌의 중국 침략은 세계 침략의 첫 발걸음이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손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때 세계는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 침략을 하루라도 빨리 제지 못한다면 극동과 세계 평화는 단 하루도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²⁹

중일 양국 국민들은 대체로 “군벌” 개념의 부정적 의미, 즉 나라와 민중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임을 받아들였다. 장제스는 “군벌”이라는 용어를 통해 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부를 정의했다. 또한 대일 선전 과정에서도 “군벌”에 반대하는 기치를 내세우며 국내와 같은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 군부 세력은 장제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빠르게 붕괴되지 않았고, 일본 국민들은 장제스의 선전에 호응하여 “군벌”에 반대하는 혁명을 자발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다. 단 “일본 군벌” 개념을 국내외 선전에 활용하려 했던 장제스의 전략과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다.

4. 손중산, 마오쩌둥의 “일본 군벌” 개념 운용

일본은 손중산의 혁명 생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이끈 중국 동맹회는 일본에서 설립되어 활동하며 많은 일본인 동지와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송경령과의 결혼식도 일본에서 올렸다. 손중산 통치 시절 중일 관계는 긴장 측면은 있었지만 결코 단절되지는 않았다.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낼 때마다, 손중산은 중일 우애를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군인들의 침략 욕망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 우연히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다.

손중산의 생일을 기념하여 푸윈(佛云)이 1940년 11월에 발표한 “총리가 일본

²⁷ 蒋介石：《中国只向日本军阀打击——抗战建国纪念告日本国民书》（1938年7月7日），《时事月报》1938年第19卷第1期，p.11

²⁸ 蒋介石：《抗战建国二周年纪念告日本民众书》（1939年7月7日），《思想言论总集》卷31，pp.77-101

²⁹ 蒋介石：《蒋委员长告世界友邦书》，《申报》1938年7月7日，제2면.

군벌을 논함”이라는 문장은, 손중산의 기존 문장에서 “일본 군벌”을 두 번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손중산이 白浪滔天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당의 우환은 일본의 군벌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쓴 부분이다. 또 하나는 손중산의 “실업 계획”(实业计划)이다. 이 문장에서 “일본은 매 한 번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두터운 보상을 얻어왔기 때문에 전쟁 자체를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각성하고 있고,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정책을 드러내려면 중국인들도 반드시 저항에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 군벌을 언급하고 있다.

30

저자가 이 글을 쓴 목적도 “일본 군벌을 물리치는 것이 총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있었다. 또한 문장을 빌어 혁명 정신을 고취하고 일본 군벌을 물리치는 것이 손중산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식이었다.

중공 지도자 마오쩌둥도 적게나마 “일본 군벌”이라는 개념을 활용했다. 인민출판사에서 1991년에 출간된 《마오쩌둥선집》(총 4권)을 검색해 보면, 1949년 10월 이전에 발표된 총 5편의 글에서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9회 언급한다. 1938년 5월에 발표한 《항일유격전의 전략문제》(抗日游击战争的战略问题)에서 두 번, 같은 달에 발표한 《지구전을 논함》(论持久战)에서 두 번, 1939년 9월의 《소련이익과 인류이익의 일치》(苏联利益和人类利益的一致)에서 한 번, 1944년 4월의 《학습과 시국》(学习和时局)에서 세 번 사용했으며, 마지막으로 항일전쟁이 끝난 후 1946년 8월에 발표한 《미국기자 애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대화》(和美国记者安娜·路易斯·斯特朗的谈话)에서 한 번 사용한다. 그 외에도 1949년 1월의 《국민당반동정부가 일본침략군 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와 국민당 전범을 재체포 할 데 관한 중공 대변인의 명령 및 담화》(中共发言人关于命令国民党反动政府重新逮捕前日本侵华军总司令冈村宁次和逮捕国民党内战罪犯的谈话)에서도 “일본 파시스트 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일본 군벌”을 사용했던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주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주로 병력 부족 그리고 타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중국에 대한 과소 평가와 일본 군벌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지휘 측면에서 많은 실수도 발생했다. 가령, 점진적인 병력 확충, 전략적 협력 부족, 특정 시기의 주공 방향(主攻方向) 부재 등이다. 그리고 일부 작전에서 타이밍을 놓쳐 포위 상황에서도 상대 병력을 전멸시키지 못했던 것이 세 번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군벌은 병력 부족(소국과민小国寡民, 자원 부족 및 봉건적 제국주의 특성 등), 타국에서의 작전(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야만성 등), 지휘의 서투름으로 인해 공격전과 외선작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주도권을 상실해 갔다.³¹

³⁰ 佛云：《总理论日本军阀》，《胜利》1940年第31期（第104号），1940年11月9日。문장에서는 白浪滔天로 되어있는데, 정확히는 宫崎滔天(미야자키 도텐)이다.

³¹ 《毛泽东选集》（第二卷），pp. 410-411，北京：人民出版社 1991年版。

마오쩌둥은 자신의 문장에서 대중 침략을 감행한 일본 기관, 군대 및 장교를 지칭할 때, “일본 군벌” 외에도 다양한 단어를 사용했다. 가령, 일본제국주의, 일본제국주의자, 일본파시스트, 일본침략군, 일본침략자와 같은 단어들이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침략자”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언급된다. 또 주목할 점은 시기에 따라 마오쩌둥의 단어 선택도 달랐다는 것이다. 1935년 12월에 발표한 《반일본제국주의 전략을 논함》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23회, ‘일본제국주의자’를 6회 사용했다. 그러나 10년 후, 1945년 항일전쟁 승리 직전에 발표한 《연합정부론》에서는 “일본침략자”를 75회 언급한 반면, “일본제국주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이 중국 인민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중국 인민들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 경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평온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1945년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무장을 해제한 후에도 중국 인민들은 여전히 “일본 군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위에서 언급한 표 1 통계를 보면, 중국 언론에서 발표된 기사 중 제목에 “일본 군벌”이란 단어를 포함함 기사가 1946년에는 19건, 1947년에는 11건, 1948년에는 16건, 1949년에는 2건으로 검색된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로, 일본 군벌의 침략 책임을 추궁하고 그 죄행을 폭로하는 것. 가령, “일본 군벌이 저지른 죄악” (《신문보》 新闻报, 1945년 12월 19일)과 “중국을 노예화 한 일본 군벌” (중경 《익세보》 益世报, 중경판, 1946년 8월 21일) 등과 같은 기사다. 둘째로, 일본 군벌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 예를 들어, “일본 군벌의 종말: 또 한 무리의 일본 전범들이 투옥” (《강소민보》 江苏民报, 1945년 12월 4일)와 “무력 남용 일본 군벌 청산 기소장 어제 정식 제출” (《전선일보》 前线日报, 1946년 4월 30일) 등이다. 셋째는 일본 군벌 부활을 막는 것. 가령 “일본 군벌 부활 예방” (중경 《중앙일보》, 1945년 9월 3일)과 “구 일본 군벌 재기 시도” (《중앙일보》 1947년 10월 23일)와 같은 기사들이다.